



## 「가족·커뮤니티·커먼즈의 미래」 주제 국제학술대회 개최 ‘좋은 삶’을 위한 지역과 공동체, 커먼즈 탐문

인문학연구원(원장, 정미라)은 9월 27일(금) 10시 ~ 16시 30분에 전남대 인문대1호관 김남주기념홀·현공세미나실에서 「가족·커뮤니티·커먼즈의 미래」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인문·복지·커뮤니티의 개념적 연결과 계층 지점들을 다시 물으며 ‘좋은 삶’의 역할을 담금질하는 다차원적 지리로서의 지역과 공동체 그리고 커먼즈를 탐문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학술대회는 인문커뮤니티융합학과 대학원생 세션, 특별세션, 기조강연, <커뮤니티 평화 연구>, <커뮤니티와 커먼즈>, <로컬 커뮤니티 실천> 등 다양한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기조강연은 Sophie Lewis(브루클린사회연구소) 교수가 <제노사이드 시대의 친족 만들기: 돌봄 공동체화, 가족 폐지, 유년기를 무기화하기>라는 주제로 발표하였고, 특별세션에서는 <인문커뮤니티의 사람, 역사, 공간 연결하기 : 평화와 연대의 제일조건인 마을 우토로>라는 주제로 김수환(우토로평화기념관) 선생이 <우토로평화기념관, 운영과 실천>, 가즈



무라 마코토(리즈메이칸대) 교수가 <기억과 연대의 지역 역사:우토로 마을의 거주권 투쟁>이란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후 1세션 <커뮤니티 평화 연구>는 Ladon Hancock(켄트대), Sara Koopman(켄트대) 교수가 스토리텔링과 구술 역사 맵핑을 중심으로 발표하였고, 2세션 <커뮤니티와 커먼즈>는 류도향(전남대 인문학연구원), 한경애(사이타마대) 교

수가 초개인화 시대 커먼즈의 가능성과 비공통적 신체 돌보기를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마지막 3세션 <로컬 커뮤니티 실천>은 채상원(옥스퍼드대), 장복동(전남대 인문학연구원) 교수가 성미산 마을의 돌봄 공동체 및 지역인문학센터 ‘노뎃돌’의 성과를 중심으로 한 사례 연구를 발표하였다.

### 제34, 35차 콜로키움 개최

인문학연구원(원장, 정미라)은 9월 6일(금)과 10월 18일(금)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의 제34, 35차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콜로키움은 인문대1호관 313강의실과 대면 강연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먼저 34차 콜로키움은 인문학연구원 장복동(HK연구교수)의 사회로 최현숙(여성주의 생애사 연구소)

소장을 모시고 「빈곤 판 속 가족중심주의」란 주제로 진행하였다. 34차 콜로키움에서 최 소장은 “구술생애사 작업을 통해 빈곤한 사람들(주로 노년층)의 가족중심주의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최 소장은 가족 바깥으로 쫓겨 나온/밀려난 홈리스와 노숙인의 정서와 일상을 관찰함으로써, 그들의 가족중심주의적 언어와 관계 맺기의 내막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

35차 콜로키움은 정홍수(도서출판 강) 대표를 모시고 「우리 시대의 ‘잡다한’ 가족 초상-김려령 소설집 <기술자들>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정 대표는 김려령 소설을 주목하며, 진단하고 처방하는 언어가 아닌 ‘그러모은’ 언어로 그리는 ‘잡다한’ 이야기들 속에서 ‘가족’은 계속 끈덕지게 존재하면서 그것의 의미를 새롭게 묻고 재정의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정미라 교수(인문학연구원장)는 “34~35차 콜로키움은 구술생애사의 관점에서 가족 바깥으로 밀려난 빈곤한 사람들을 주목하거나, 현대 문학 속에 그려진 ‘잡다한’ 가족을 들여다봄으로써 정상 또는 일반으로 통칭되는 틀 바깥에 위치한 또 다른 우리 또한 분명히 존재하는 구성원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근원적인 것인지 질문을 던지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 인문학연구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추진

미국 켄트주립대와 네트워크를 위한 워크숍  
 '우토로' 학술 교류 공동 포럼 개최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일본 교토 워크숍



인문학연구원(원장, 정미라)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였다. 먼저 8월 6일(화)에는 미국 켄트주립대 평화와 분쟁학부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위한 워크숍을 줌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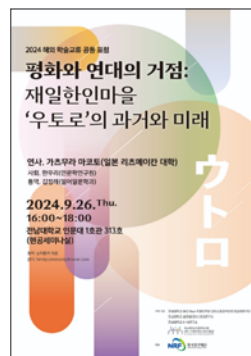
이번 워크숍은 인문커뮤니티융합학과와 평화와 분쟁학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 준비 모임으로 두 기관의 커리큘럼 운영과 실제 사례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9월 26일(목)에는 일본 리즈메이칸 대학 국제평화기념관장인 가즈무라 마코토 교수를 모시고 재일한인마을 '우토로'의 과거와 미래를 중심으로 학술교류 공동 포럼을 개최하였다.

한편, 인문학연구원(원장, 정미라)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은 2024년 8월 25일(일)~28일(수), 일본

교토 일원에서 2단계 4차년도 하계 글로벌 네트워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하계 워크숍은 인문학연구원의 향후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미국 켄트주립대와 글로벌 네트워크 워크숍을 추진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원은 27일(화)에 교토에 위치한 우토로평화기념관, 리즈메이칸대학 코리안연구센터와 현장 워크숍을 실시하여 향후 평화와 소통을 위한 기관 사이의 연대를 공고히 구축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연구원 학술동정

### 논문게재

- ▶ 류도향, 「도시에서 차이의 공간 만들기: '공간 달콤' 사례를 중심으로」, 『평화와 사회』 32권 2호, 한국문화사회학회, 2024.08.31.
- ▶ 류도향, 「지체장애인의 차별경험과 자살생각의 연관성」, 『보건과 복지』 26권 3호, 한국보건복지학회, 2024.09.30.
- ▶ 이원석, 「원대 초기 유학과 왕악」, 『유학연구』 68집, 유학연구소, 2024.08.31.
- ▶ 조경순, 「한국어 감정동사 연쇄 구문에 대한 연구」, 『어문논집』 101호, 민족어문학회, 2024.08.31.
- ▶ 정미선, 「동시대 한국소설에 나타난 레즈비언 재현과 규범적 친밀성의 재구성」, 『인문사회과학연구』 6권 4호, 국제인문사회연구학회, 2024.08.31.
- ▶ 정미선, 「동시대 한국소설에 나타난 쿼어 즐거움의 서사적 의미망과 쿼어 느낌의 정치」, 『여성문학연구』 6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4.08.31.
- ▶ 정미선, 「전병순의 작가적 생애와 소설세계 연구 - 여성 작가의 글쓰기와 여성 주제 형상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23권 2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24.08.31.
- ▶ 정미선, 「『독신녀』의 영화화에 나타난 1970년대 한국 문화의 젠더 정치 - 소설 『독신녀』와 영화 <독신녀>의 관계적 규범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 『어문론집』 99권, 중앙어문학회, 2024.09.30.
- ▶ 한우리, 「인류세 시대의 돌봄: 마지 피어시의 『시간의 경계에 선 여자』」, 『미국학 논집』 56권 2호, 한국아메리카학회, 2024.09.30.
- ▶ 한의승, 「만주 지역 망명 지식인에게 가족과 공동체의 의미: 『백하일기(白下日記)』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85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24.08.31.

## 지역인문학센터 '노뚝돌' 제19회 인문주간 「다채(多彩)의 인문학」 행사

인문학연구원(원장, 정미라)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지역인문학센터 '노뚝돌'은 제19회 인문주간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다채(多彩)의 인문학」이란 주제로 10월 28일(월) ~ 11월 2일(토)에 걸쳐 <시와 그림이 함께하는 인문 풍경 나의 시, 우리의 삶>이란 주제로 시화전이 열리고, <시인초청강연 및 광주시민 '자작시' 낭송회>, <전남대학교-경북대학교 대학생 토론

배틀> 등이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인문주간 행사에서는 영호남을 대표하는 전남대와 경북대 4개팀의 본선 진출 학생들이 <다시, 능력주의를 묻다>라는 주제로 토론배틀을 통해 토론 능력을 겨루는 경연장이 마련되어 흥미를 끌었다.

